信 心과 精誠으로 青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 / 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월 25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욕심없음이 최상의 쾌락이고 만족이 최상의 부귀다.

(천청문경)

법회 안내

청수사 (02)816-129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기초교리강좌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 5시
자성신공불사 목 오후6시

인정사 (02)292-2439

인등기도법회 10일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주한마음선원 273-6946

정기법회 둘째 일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목 오전10시30분
법형제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청년법회 목 오후7시30분
학생법회 토 오후4시30분
심근회법회 첫째 화 오후2시
심일회법회 매월 둘째 화 오전10시30분
심원회법회 매월 셋째 화 오전10시30분
심선회법회 매월 넷째 화 오전10시30분

천안 천불암 (0417)564-3223

큰스님초청법회 매월 초 3일
초하루법회 매월 1일 오전11시
인등기도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 오전11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 오전11시

김천 직지사(0547)436-3174

거사림법회 셋째 일 오후2시
관음회법회 19일 오전10시30분
지장회법회 18일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전6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안산 영각사 (0345)498-7700

일요정기법회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안산 운전기사회법회 매월 둘째 화 오전11시
거사림신행법회 일요법회 및 사찰순례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1

◇밝은 웃음으로 손 맞잡은 조계 · 태고 두 종단의 총무원장들. 지난 17일 40년만에 이루진 두 종단 수장들의 악수는 분규종식, 불교공동체형성의 첫 신호탄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태고종

40년 묵은 감정 "해빙"

'89년 합의안 근거로 해결책 모색

17일 6년만에 회동 … 재산처분이 걸림돌

1954년 정화이후 조계종과 태고종의 40년 묵은 앙금으로 남아있던 분규사찰문제가 새해 들어 해결의 기미를 보이면서 그 귀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의 「조계 · 태고 분규사찰 실무협의회」와 태고종의 「태고 · 조계 사찰분규 종식위원회」는 지난 17일 하림각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화이후 40여년을 끌어온 분규사찰 문제를 89년 양측 실무대표단에서 합의된 안을 근거로 하여 풀어가기로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이로써 지난 89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조계 · 태고종간의 분규사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태고종 서봉 총무원장이 동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 종단은 같은 종조 · 종지 · 교리를 신봉하는 일불제자로서 불교 중흥과 공익을 위한 입장을 견지해 공식 · 비공식 접촉을 자주 가짐으로써 분규사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1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 종단 위원회 정휴 위원장과 이규범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1954년부터 시작된 정화사의 이념적 청산이라는 대원칙하에 불교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는 분규사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는데 양 종단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한 "불교중흥을 위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재원을 염출할 수 있다"고 말해 양 종단의 합의에 의한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봉원사 땅이 매각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89년 당시 합의한 내용은 △선암사는 재단법인을 설립 7대 6으로 이사를 구성 이사장은 조계종에서 맡는다 △봉원사는 5대 5로 재산을 분할 관리한다 △나머지 분규사찰은 실무대표단에서 계속 협의한다 등이다.

합의안은 당시 양 종단의 중앙 종회에서 통과됐었으나 조계종은 원로회의에서 반대하고 태고종은 분규 당해사찰인 봉원사 · 선암사의 거부로 무산됐었다.

89년 당시에도 매각 대상으로 떠올랐던 봉원사 유휴부지는 총 10만여평으로 현금환매가 가능한 1만여평을 포함 개발가능한 3만여평이 매각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계일각에서는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그나마 남아있는 교계 재산을 처분하는 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가 하는 논란이 분분하고 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양 원장스님들이 인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같은 종조 · 종지 · 교리"를 신봉하고 있고, 정화당시의 사찰점유에 무리가 있었음을 조계종이 인정하고 있는만큼 피차 양보와 대화로 분규 사찰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는 것.

70년 당시 헐값에 팔아 종단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강남 봉은사가 최근 '땅 한평사기' 운동을 힘겹게 벌이고 있다.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땅은 '분규사찰이기 때문'이라는 냉소어린 지적을 교훈삼지 않더라도 상보정재인 불교재산의 처분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경숙 기자〉

신행단체들 전국조직 정비나서

재가연합, 5월경 새 신도회 결성키로

새로운 전국 규모의 신도회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회장 안동일)은 지난 1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신년하례회 및 95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전국적 신도조직의 결성을 위한 견해를 밝혔다.

재가연합은 이날 회견을 통해 "불교개혁을 재가신도에게로 심화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재가신도 단체와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가칭) 새로운 전국적 신도조직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2월 초까지 구성한다"고 밝히고 5월경 새 신도회의 정식발족을 골격으로 하는 일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전국 신도회 결성 일정에 따르면, 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3개월간 지역조직 기초마련과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순회 공청회를 가지며, 4월말경 전국 규모의 법회를 개최한 뒤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재가연합은 전국적 신도조직이 완만하게 결성되면 재가연합을 발전적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가연합의 새 신도회 결성에는 45개 소속 신행단체 가운데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전국불교운동연합이 대표단체로 참여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중앙신도회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전국적 신도조직인 중앙신도회 구성은 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고 전제하고 "중앙신도회는 사찰신도회를 토대로 하는 교구신도회가 중심이 될 것이며 신도연합단체가 이에 참여하는 선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또 "명실상부한 신도 대표단체가 되도록 하기위해 각 신도연합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여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표명했다.

현대불교신문이 오는 2월부터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 면을 신설합니다.

신설 법공양 면은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 16면)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 8K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현대불교는 1차로 오는 2월 중에 월 2회, 매회 4면 정도를 시험제작하고 교계의 호응을 보아 가능한 한 5월부터 매주 4면씩을, 10월부터는 매주 8면까지를 법공양 면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법 공양면 신설

각 종단·사찰 대상 제작 실비로

독자에겐 사실상 증면 효과

법공양 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제작을 원하는 부수(部數)의 실제 인쇄비 및 우송료로 한정됩니다.

현대불교가 일반 제작비 부담증가를 무릅쓰고 법공양 면을 신설하는 뜻은 주 16면 발행만으로는 각 사찰마다 행해지는 설법을 지상중계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 8~9면에 게재 중인 「지상법석」을 확대해 달라는 독자의 요구를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공양 면을 이용하시려면 본사 소정양식에 따라 미리 계약을 맺되 이용 횟수 5회 이상, 이용 면수 2개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각 종단 · 사찰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경력 편집기자를 찾습니다

불교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현대불교」가 지면확대와 새로운 편집의 틀을 개척해 나가고자 경력 편집기자를 찾습니다. 불교 언론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뜻있는 전문인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 모집분야 : 편집
◇ 모집인원 : ○ 명
◇ 응시자격 : 신문편집경력 4년 이상
◇ 모집마감 : 2월 10일
◇ 응모요령 :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각 1통씩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02)722-4162

현대불교신문사

탱화속의 불보살 한 자리에 15면

HALLA 자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謹賀新年

世界屈指의 重工業 先導企業-漢拏의 事業場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습니다

重工業專門業體로 快速成長을 거듭해 온 漢拏는 21世紀에 世界的 一流企業으로 跳躍하기 위해 事業의 世界化에 拍車를 加하고 있습니다.

漢拏는 造船, 自動車部品, 시멘트, 重裝備, 環境·製鐵製鋼·發電·製紙펄프를 비롯한 각종 産業設備, 航空宇宙産業 등 重工業分野와 建設, 貿易, 資源開發, 海運 등 關聯産業分野에서 오랜 經驗과 蓄積된 技術力을 이어나가면서 百折不屈의 體質로 國際競爭力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中國, 東南亞, 中東을 비롯해 事業의 世界化에 눈부신 成果를 올리고 있는 漢拏는 全世界를 舞臺로 事業을 展開하고 있어 漢拏의 事業場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습니다.

環境保護를 最優先 課題로 삼고 있는 漢拏는 神이 創造하신 이 地球를 더 푸르고 더 깨끗하게 우리의 後孫들에게 물려줌으로써 "人類가 快適한 環境에서 豐饒를 누릴 수 있는 待望의 未來社會"를 實現하기 위해 邁進하고 있는 信賴와 創造의 企業입니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라레미콘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마이티정보통신 · 한라제지 · 배달학원